

이탈리아로 떠나 일본을 품에 안다

디누 리파티의 전설이 남아 있는 브장송 음악제와 브장송 지휘 콩쿠르가 지난 9월에 열렸다. 거장들이 향연을 펼치고, 젊은 지휘자들이 지음을 겨루는 그 뜨거운 현장을 스케치한다.

>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가 백혈병 투병 중에 마지막 공개 연주회를 가진 무대가 1950년 9월의 '브장송 국제음악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 중동부 프랑슈-콩테 지방의 주도인 브장송에서는 1948년부터 매년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는 '브장송 국제음악제'는 여름을 피해 9월의 초가을에 등지를 튼다. 비휴가철에 열리는 음악제의 속성상 관광객의 발길은 뜸한 편이지만, 내실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음악제 기간 격년제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브장송 지휘 콩쿠르'가 주요 이벤트다. 올해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의 보름 남짓 음악제가 펼쳐졌다. 루크 돌만 지휘의 몬테카를로 필 개막연주회 후, 로린 마젤 지휘의 이탈리아 교향악단(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교향악단), 이르지 벨로홀라베크 지휘의 BBC 교향악단, 지오반니 안토니니 지휘의 일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 페터 차바 지휘의 브장송 프랑슈-콩테 오케스트라, 윤 피르클 지휘의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실 새 없이 열렸다. 그 사이사이 필리프 카사르, 루돌프 부흐빈더 같은 명인 피아니스트들의 리사이틀이 열렸다. 거기에 올해로 51회째를 맞는 '브장송 지휘 콩쿠르'까지 가세해 프랑스 음악애호가들의 눈길은 온통 브장송으로 쏠렸다.

필리프 카사르와 이탈리아 교향악단의 재발견

올해의 음악제 슬로건은 '이탈리아로의 여행'이었다. 그래서 관현악 연주회, 리사이틀 할 것 없이 온통 이탈리아와 관련된 곡들이 메뉴에 올랐다. 13일 낮의 리사이틀에서 필리프 카사르는 쇼팽의 '파가니니의 추억', 리스트의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04번' '라 캠파넬라' '서글픈 곤돌라' 1번, '단테를 읽고' 등 순 이탈리아 관련 곡만을 프로그래밍했다. 카사르의 독주회가 끝나고



30분이 지난 후 대극장에서 열린 마젤 지휘 이탈리아 교향악단의 연주회도 매한가지였다. 슈베르트의 '이탈리아 양식' 서곡 D.590과 로시니의 '비단 사다리' '신데렐라' '알제리의 이탈리아인'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이 연이어 극장을 진동했다. 필리프 카사르와 이탈리아 교향악단의 존재는 모두 '발견'이었다. 1962년 브장송 태생인 카사르는 파리 음악원과 빈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말년의 니키타 마갈로프를 사사한 인물이다. 1985년 크리스타 루드비히의 독창회 반주자로 파리 데뷔 무대를 치른 카사르는 1988년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와 더블린 콩쿠르에서 연이어 그랑프리를 석권한다. 이후부터 그의 국제적인 활약상은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음악제 프로듀서와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정작 피아니스트로서는 만나기 힘든 인물이 됐다. 그러던 차에 접한 그의 리사이틀은 르네 뒤샤블 이후 리스트에 흥건히 젖은 또 한 명의 프랑스 피아니스트를 발견케 한 흥분 어린 체험이었다. 자신의 기질을 피아노에 녹여냈는지 시종 성마른 타건을 들려줬지만 휘몰아치는 박력만은 대단했다. '라 캠파넬라'의 스타카토 음형을 정교하게 점묘하고, '단테를 읽고'를 그렇듯 광막한 포물선으로 그려간 연주는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한 쾌속질주의 해석 속에서 쇼팽의 야상곡들과 뱃노래는 더딘 템포에 한껏 여유를 살린 프레이징 구획이 의외였다. 1957년, 토스카니니의 죽음 직후 결성된 이탈리아 교향악단은 유럽과 미국의 특급악단에서 활약하는 이탈리아 연주자들을 규합한 단체다. 2006년부터 로린 마젤이 종신 음악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악단의 국제적 성가는 수직상승했다. 실연으로 접한 이탈리아 교향악단의 소노리티는 기름때가 벗겨진 메마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올림은 채 1천 석이 되지 않는 브장송 대극장의 조악한 반사음향에도 간접 영향을 받은 듯 보였다. 흡사

투명한 오로라에 휘감긴 듯 극히 시린 울림을 뿜어내는 북구의 악단들에 비해, 남국의 악단들은 다소 메마르고 건조한 음향을 발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네티즌이 뽑는 지휘자상에 한국의 헨리 신

이튿날인 14일에는 '제51회 브장송 지휘 콩쿠르' 16강이 퀴르살에서 열렸다. 16강에 올라온 총 20명의 다국적 예비 지휘자들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서곡과 베토벤의 교향곡 5번 1악장을 20분씩 공통으로 지휘했다. 중국인 셋, 일본인 셋과 함께

결선에 올라온 한국인은 홍석원(27)과 헨리 신(30) 두명이었다.

이중 홍석원은 빼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첫 순서라는 불리함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이르지 벨로홀라베크를 포함한 심사위원진은 후반에 지휘한 경쟁자들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 결과 중국인 셋은 모두 고배를 마셨고 일본인 셋 모두는 10명이 겨루는 8강에 올랐다. 11번째로 지휘한 헨리 신 또한 8강 대열에

합류했다. 헨리 신은 이튿날 다시 4강 대열에 합류했지만 끝내 3명이 겨루는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예상대로 세이지 오자와에게 지휘수업을 받은 도모시로 세야마(29)와 가주키 야마다(30), 그리고 불가리아의 로센 게르고프(28)가 결승에 올랐다.

사자 머리를 하고 거침없는 야성미를 뿜어낸 도모시로 세야마와 극히 세밀한 디테일에 치중하던 곱상한 외모의 가주키 야마다는 스타일부터가 달랐다. 이들의 중간쯤에 로센 게르고프의 지휘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 중 최종 승자는 가주키 야마다에게 돌아갔다. 그는 관객이 뽑은 지휘자상까지 독식했다. 야마다의 수상에는 8강에서 야나체크의 '타라스 불바' 를 가장 인상깊게 끌고 간 데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작용한 것처럼 보였다. 현재 리옹 국립 오페라의 수석지휘자로 있는 가주키 오노의 정교한 지휘를 닮은 가주키 야마다의 지휘 스타일은 누가

봐도 매력적이었다. 거기에 단원들과 조곤조곤 대화해 가며 자신의 의향을 관철하던 장면은 어느 악단에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브장송 지휘 콩쿠르가 배출한 명지휘자들은 수없이 많다. 알렉산더 김슨, 세르주 코미소나, 게르트 알브레히트, 세이지 오자와, 미셸 플라송, 즈데네크 마칼, 헤수스 로페즈 코보스 등이 이 콩쿠르의 역대 그랑프리 수상자들이다. 1993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브장송 지휘 콩쿠르에서 일본인이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는 1959년 세이지 오자와와 1989년 유타가 사도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반세기를 넘은 콩쿠르의 역사에서 한국은 단



이르지 벨로홀라베크(앞줄 가운데)와 심사위원들, 그리고 결선 진출자들.

한 번도 그랑프리 수상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보루였던 헨리 신은 이번 콩쿠르에서 네티즌이 뽑은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다.

환갑을 넘긴 브장송 국제음악제와 반세기를 넘긴 브장송 지휘 콩쿠르의 권위는 긴 역사만큼이나 무형예술의 역사적인 모뉴먼트라 할 만하다. 디누 리파티가 1950년 9월의 제3회 브장송 국제음악제에서 남긴 전설의 흔적은 매년 9월이면 브장송으로 모여드는 계승자들의 등장과 함께 또 다른 전설로 이양될 것이다. '전설의 고향' 브장송은 그래서 '미래의 전설의 요람' 이기도 하다.

글_ 김승열 | 음악 칼럼니스트

사진_ Festival international de musique de Besançon Franche-Comté/Concours international de jeunes chefs d' orchestre